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WSJ: 11월 물가 둔화세.... 작년 비교 7.1%만 올라
- WSJ: 당혹스런 국채 시장... 수익률곡선 침체 신호
- Bloomberg: 테슬라 주식 가장 많이 떨어져... 더 떨어질 수도

#### [물류]

- WSJ: 미 공급망 부족 해소 연방 법안 발의된다

#### [글로벌 경제]

- Bloomberg: 올해 글로벌 무역 규모 사상 최대... 32조불

#### [에너지]

- Bloomberg: 미 천연가스값 오른다... 올겨울 히팅 수요 증가로
- Bloomberg: 연방 에너지국, "핵융합 에너지 돌파구 열었다"

#### [한국 경제지 기사들]

- 한경: 'Fed의 핵심지표' 기대 인플레이 하락...뉴욕 연은 지수 ↓
- 연합: 미국 11월 재정적자, 1년 전보다 30% 늘어
- 연합: 캐피탈이코노믹스 "美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 더 확대될 것"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미국인 프리랜서 6천만명...기록적인 수의 홀로서기 도전
- Bloomberg: 관리자의 딜레마: 사무실에서 월드컵 경기를 보게 해도 될까?
- WSJ: 유나이티드 항공, 보잉 제트기 100대 계약
- WSJ: WeWork, 현금 보유량 줄고 채무 불이행 가능성 증가
- CNBC: 소비자와 근로자들, LGBTQ(성소수자) 지지 기업들 선호한다
- CNBC: Dollar General의 새 Popshef 매장, 인플레이에 지친 교외 쇼핑객 유혹한다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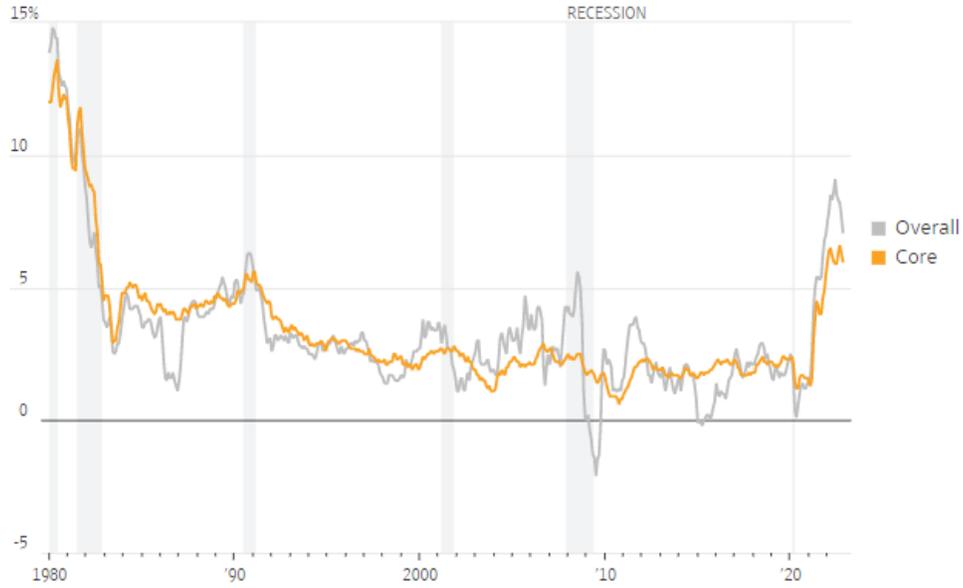
#### WSJ: CPI Report Shows U.S. Inflation Eased in November

#### 11월 물가 둔화세.... 작년 비교 7.1%만 올라

- 11월 물가가 작년 12월 이래로 가장 낮은 속도로 상승했다.
- 오늘 화요일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동월 대비 7.1% 상승, 10월의 연간 상승률 7.7%보다 하락했다. 올해 6월의 최고치 9.1%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 변동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Core CPI)는 10월 연율 6.3%에서 11월 6%로 상승세가 줄었다. 9월엔 지난 1982년 8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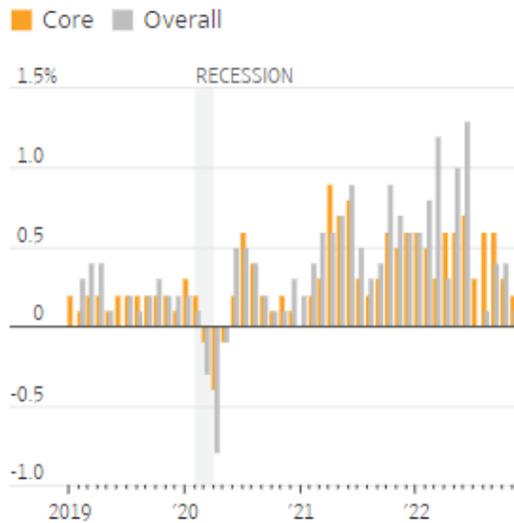
래 가장 높은 6.6%의 상승세였다.

Consumer-price index, change from a year earlier



Note: Core excludes food and energy.  
Source: Labor Department

Inflation, change from previous month



Note: Core excludes food and energy. Seasonally adjusted  
Source: Labor Department

WSJ 기사

### WSJ: The Treasury Market Throws a Curveball 당혹스런 국채 시장... 수익률곡선 침체 신호

- 국채 수익률 곡선이 깊게 역전된 상황이다. 단기물 국채 수익률이 장기물 보다 훨씬 위에 위치해있다.

- 
- 10년물 수익률은 현재 3.61%로 2년물보다 0.79%나 낮다. 경기 침체 신호를 보이는 것이다. 올해 봄 짧은 역전보다 현재 상황이 더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 수익률 역전은 연준이 향후에 금리를 내려야 할 만큼 경기가 힘든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더 걱정스런 일은 10년물이 3개월물보다 더 아래라는 것이다.
- 그러나 장기 국채의 수익률은 최근 역사와 비교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면에서 채권 시장이 침체를 믿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국채를 매입해야 할 이유가 될지도 모른다.

#### WSJ 기사

### **Bloomberg: Tesla Stock Has Never Been This Cheap — And It Could Still Drop Further**

#### **테슬라 주식 가장 많이 떨어져... 더 떨어질 수도**

- 테슬라 주식이 올해 50% 이상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가로 거래되고 있다.
- 일론 머스크의 최근 트위터 인수가 이 주식이 역풍을 맞은 한가지 주요 이유 중에 하나. 전문가들은 이 주식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테슬라는 예상 수익의 30배에 거래되고 있어 S&P 500 지수의 예상 수익의 17배를 훨씬 상회. 현재 트위터 인수,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의 EV 수요 감소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 Bloomberg 기사

### **[물류]**

### **WSJ: Supply-Chain Shortfalls Targeted by New Bill**

#### **미 공급망 부족 해소 연방 법안 발의된다**

- 연방의회는 팬데믹으로 야기된 미 공급망 문제를 지원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데 연방 관련 기관들이 1) 국내 제조를 지원하는 기존 연방 프로그램을 잘 조정하고 동시에 2) 향후 공급 부족의 막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오늘 발의될 예정이다. 법안 이름은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Coordination Act of 2022
- 양당에서 한명씩인 의원 Sen. Marco Rubio (R., Fla.), Rep. Ro Khanna (D., Calif.)이 발의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장관급 관련 부처 책임자들은 국가 안보와 국내 제조업 성장에 해를 끼치는 미국의 허약한 공급망 상황을 확인토록 요구하고 있다.

- 또한 관련 연방 부처가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미 경제 발전 정책을 진작시키는 연방 자금 조달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이들 부처 책임자들이 정기적으로 여러가지 권고 방안에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 이 의원들은 솔라 패널 제조가 아시아로 이동한 장기적인 문제나 팬데믹으로 미국 관리들이 겪은 의약 공급 부족 등 단기적인 문제 해소를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WSJ 기사

### [글로벌 경제]

#### **Bloomberg: Global Trade Surges to \$32 Trillion Record in 2022, UN Says** 올해 글로벌 무역 규모 사상 최대... 32조불

- 관련 UN 보고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무역 규모가 32조 달러로 예상되어 12%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같은 작년의 큰 규모 상승은 에너지 제품 무역 규모의 증가 때문이라고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보고서는 밝혔다.
- 상품 거래 규모는 연간 비교로 10% 상승한 25조 달러, 서비스는 7조 달러로 15% 증가했다.
- 그런데 인플레이 조정 글로벌 무역 규모는 내년에 줄어들게 된다고 예상하는데 그 이유로 지정학적인 갈등, 낮은 경제 성장, 높은 물가, 기록적인 국제 채무 구조라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 [에너지]

#### **Bloomberg: Natural Gas Rises as Cold Wave Boosts Heating Demand Across US** 미 천연가스값 오른다... 올겨울 히팅 수요 증가로

- 올해 12월 들어 미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다. 미 전역에 예상보다 더 추울 것이라는 전망에다 글로벌 공급이 타이트 해지면서 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오늘 화요일 뉴욕 오전 시간에 1월 선물 인도분은 7.4% 오른 \$7.071/mmbtu.
- 한편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미 전역은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 12월 23일과 24일 미 중서부와 남부 일부 지역의 경우 평상시보다 20도 더 내려갈 예정이다.

##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Says Scientists Make Breakthrough in Nuclear Fusion Energy****연방 에너지국, “핵융합 에너지 돌파구 열었다”**

- 연방 에너지국 소속 캘리포니아 소재 과학자들이 핵융합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 청정에너지에다 ‘무제한’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 샌프란시스코 인근 연구소인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는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한 융합반응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 융합은 해와 같은 별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과 똑같은데, 이 같은 성과로 인해 종국적으로 태양의 에너지를 관리해 지구상의 상업용 전력 발전소를 만들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수년이 걸릴 예정이지만 충분한 무탄소 전기 생산이 가능한 기술이다.

## Bloomberg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들]**

- 한경: 'Fed의 핵심지표' 기대 인플레이 하락...뉴욕 연은 지수 ↓
- 연합: 미국 11월 재정적자, 1년 전보다 30% 늘어
- 연합: 캐피탈이코노믹스 "美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 더 확대될 것"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Bloomberg: US Freelancing Surges to Record as 60 Million Americans Go Solo****미국인 프리랜서 6천만명...기록적인 수의 홀로서기 도전**

- 올해 프리랜서로 활동한 미국인의 수가 사상 최대인 6천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미국 전체 노동자의 약 39%를 차지했다. 2021년 36%에서 더 증가한 것.
- 이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집에서 일해야만 했던 팬데믹 이후, 전통적인 직업 경로를 넘어 “일”을 재정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유연성과 자율성을 찾아 홀로서기를 도전하는 것이다.
- 연구에 따르면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프리랜서를 고려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2022년 전체 Z세대 전문직의 43%, 밀레니얼 세대의 46%가 프리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미 근로자의 약 17%가 전통적인 직업과 프리랜서의 혼합으로 수입을 얻고 있는데, 이는 2021년보다 3% 늘었다.

#### Bloomberg 기사

### **Bloomberg: Your Boss Is Debating Whether or Not You Can Watch the World Cup at Work**

#### **관리자의 딜레마: 사무실에서 월드컵 경기를 보게 해도 될까?**

- 월드컵 경기가 극적으로 펼쳐지면서 월가의 주식 거래량마저 둔화되며 전 세계 관리자들은 딜레마에 직면해있다. 분석에 따르면 월드컵 경기 시간의 40%가 영국의 업무 시간과 겹치고, 거의 절반이 미국의 업무 시간과 겹치는 것이다.
- 하지만 업무 시간에 월드컵 경기를 본다고 해서 생산량이 크게 줄지는 않았다. ActivTrak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들의 미국-웨일스 경기 당일 작업 이탈은 미미했으며, 직원들은 작업 시간을 조정하는 식으로 대처했다는 것.
- 리더십 개발 회사 설립자 Robin Pou는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약간의 즐거움을 누린다고 생산성이 손실될 것을 걱정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라며, 월드컵 경기를 보는 데에 걸리는 두 시간을 사무실 관계 형성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 Bloomberg 기사

### **WSJ: United Airlines Orders 100 Boeing Dreamliners**

#### **유나이티드 항공, 보잉 제트기 100대 계약**

- 유나이티드 항공이 보잉사의 제트기 787 Dreamliner 100대를 계약하며 노후한 제트기를 교체하고 글로벌 범위를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계약은 약 3백억 달러 규모로, 보잉사가 에어버스와의 경쟁에서 승리했다.
- 유나이티드는 새 제트기로 인해 유지 보수 및 연료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승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새로운 직항 노선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팬데믹 이후 장거리 국제선 비행의 반등에도 베풀었다.
- 한편 Dreamliner는 거의 2년 동안 부품 공급망 문제와 규제 문제 등으로 항공사 인도에 차질을 빚어오다가 지난여름에서야 재개한 바 있다.

#### WSJ 기사

### **WSJ: WeWork's Once Robust Cash Reserves Have Dwindled, Raising Chances of Default**

## WeWork, 현금 보유량 줄고 채무 불이행 가능성 증가

- 사무실 공간 임대 코워킹 기업 WeWork의 현금 보유고가 바닥나고 있다. 이 회사는 고가의 장기 임대와 30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떠안으며 2020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43억 달러의 현금 적자를 기록했다. 후원사인 소프트뱅크의 대출과 주식 투자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
- WeWork는 장기 임대 계약을 맺고 고정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 임대하지 못하면 급격한 손실을 입게 된다. WeWork의 주 고객인 테크 업계의 정리해고가 급증하며 사무실 수요가 줄어든 상황이다.
- 하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오히려 단기 사무실 임대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면서 WeWork의 올해 손실이 줄었다. 올해 3분기 사무실 점유율은 72%로, 2020년 50%에서 증가했다.

WSJ 기사

## CNBC: Workers and consumers say they're likely to favor pro-LGBTQ businesses, new study says

소비자와 근로자들, LGBTQ(성소수자) 지지 기업들 선호한다

- Edelman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근로자들과 소비자들은 LGBTQ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브랜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소비자의 34%가 LGBTQ 지지 표명 브랜드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고, 반대로 낮다고 답한 사람은 19%에 그쳤다.
- GLAAD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LGBTQ가 아닌 사람의 64%와 LGBTQ인 사람의 71%가 LGBTQ가 등장하는 광고를 사용한 브랜드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답했다. Z세대의 경우 정체성이나 성향이 LGBTQ에 속한 비율도 다른 세대보다 높아 더 관심이 크다.
- 한편 기업들은 LGBTQ를 잘못 대변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저 무지개색 천으로 덮을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고용할 때 다양성을 우선시하고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반대 법안에 맞서는 등 적절하고 정확하게 LGBTQ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CNBC 기사

## CNBC: Dollar General's new Popshef stores chase inflation-weary shoppers in the suburbs

Dollar General의 새 Popshef 매장, 인플레이에 지친 교외 쇼핑객 유혹한다

- Dollar General이 2년 전 새롭게 시작해 대부분의 상품을 5달러 이하에 판매하는 Popshef 매장을 내년 두 배로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는 약 4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약 천 개의 매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득이 높은 교외의 쇼핑객들도 Popshelf를 찾아오고 있다. Popshelf는 지출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가벼운 아이템을 제공하여 소비에 민감한 쇼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또 독특한 독점 브랜드와 먹는 간식 등을 저렴하게 배치해 고객을 유혹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 Popshelf의 평균 총마진율은 40%를 넘고, 연간 170만~200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Dollar General의 마진율 30.5%보다 높은 것. Dollar General은 매장 수 기준으로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매업체이다.

CNBC 기사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 연준의 경제 전망치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경제 전망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외신들은 지난해 이맘때 내놨던 연준의 전망이 크게 빛나간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3~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폭을 발표하며,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도표)를 비롯한 향후 경제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 고점 수준과 고점 유지 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지도 기대하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